

2016학년도 1학기

미학미술사학과 춘계 정기 답사
- 역사와 예술이 깃든 푸른빛 통영 -

- ▮ 일 시 : 2016년 3월 12일 (토)
- ▮ 장 소 : 경상남도 통영시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목 차

1. 답사 일정표	2
2. 답사 코스 (지도)	3
3. 도천테마기념관 (윤이상 기념 공원)	4
4. 동피랑 벽화 마을	9
5. 남망산 조각 공원	15
6. 전혁림 미술관	20
7. 박경리 기념관	24
8. 증양 전통 시장	28
○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34

1. 답사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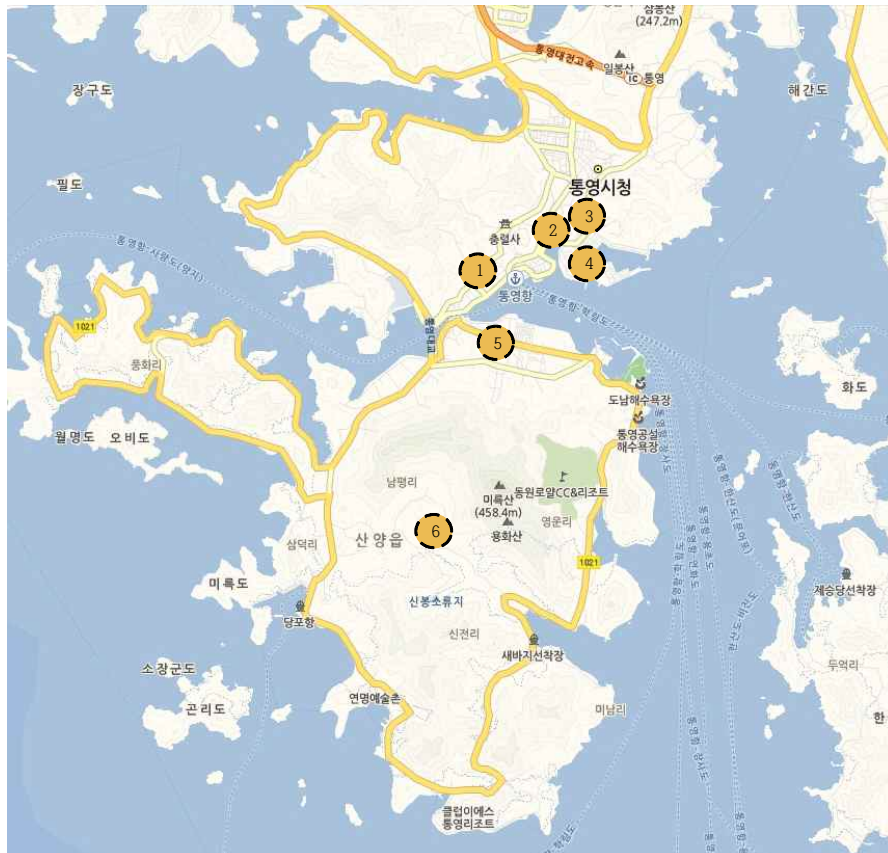
일 자	시 간	방 문 지	소 요 시 간	연 락 처	비 고
3/12 (토)	7:50 - 8:00	영남대학교 집결 및 출발			대공원역 경유
	8:20 - 11:00	대공원역 → 통영 이동 - 차량에서 조식 -	2시간40분		
	11:00 - 11:50	윤이상 기념공원	50분	055-644-1210	
	11:50 - 12:00	이동	10분		
	12:00 - 13:00	중앙 전통 시장 - 중식 -	1시간	055-649-5225 통영명가 055-649-0533	
	13:00 - 13:10	이동	10분		
	13:10 - 13:40	동피랑 벽화마을	30분	055-649-2263	
	13:40 - 13:50	이동	10분		
	13:50 - 14:20	남망산 조각공원	30분	055-648-8417	
	14:20 - 14:40	이동	20분		
	14:40 - 15:40	전혁림 미술관	1시간	055-645-7349	
	15:40 - 16:00	이동	20분		
	16:00 - 17:00	박경리 기념관	1시간	055-650-2541	
	17:00 - 20:30	통영 → 학교 이동 - 휴게소에서 석식 -	3시간30분		

* 모든 관광지 무료 주차가능 *

* 상기시간은 예상시간이므로 경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 053-810-3342 || <http://mimi.yu.ac.kr>

2. 답사 코스 (지도)



1. 윤이상 기념공원 2. 중앙 전통 시장 3. 동피랑 벽화 마을
4. 남망산 조각 공원 5. 전혁림 미술관 6. 박경리 기념관

3. 도천테마기념관 (윤이상 기념 공원)

정리 : 석사과정 4학기 이준현

-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48
- ° 개 설 일 : 2010년 3월 19일
- ° 이용시간 : 09:00 ~ 18:00
- ° 문 의 : 055-644-1210
- ° 홈페이지 : www.isangyunmemorial.com

‘도천테마기념관’은 ‘윤이상 기념 공원’이 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통영에는 윤이상을 기념하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윤이상 음악당)과 도천테마파크(이하 윤이상 기념 공원)가 그것이다. 공식 명칭에서는 ‘윤이상’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이 두 공간 모두 윤이상을 기념하는 목적을 띠고 또 그가 있었기에 조성 가능했던 공간이다. 본 답사지에는 윤이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천테마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인간 윤이상

‘현대음악의 5대 거장’, ‘베토벤 이후 천재 작곡가’, “윤이상과 같은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동양에서는 단 한사람 존재하는 천재 작곡가”¹⁾로 불리는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1917년 9월 17일~1995년 11월 3일)은 늘 자신의 음악적 영감과 창작의 원동력이 모두 통영바다와 파도소리였다고 말해왔다.²⁾ “나는 통영에서 자랐고, 통영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 나의 평생 작품을 써왔습니다. 구라파(유럽)에 체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통영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

1) 이수자, 1998, 「내 남편 윤이상(상)」, 창작과비평사, p.6에서 발췌.

2) 그는 독일작가 루이제 린저와의 대담집 「윤이상, 상처 입은 용」에서 유년 시절 “어부들의 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하나”라고 회상했고, 어머니와 동네 아낙들이 밭에서 부르던 오래된 민요, 통영을 찾은 유랑극단 공연의 관람, 부유한 외가 친척집에서 경험한 전통음악 공연 등 유년시절 통영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모두 자신의 음악에 녹아 있다고 회고했다(윤이상·루이제 린저(윤이상평화재단출판), 2005, 「윤이상, 상처 입은 용」, 랜덤하우스중앙, p.29.에서 발췌). 또한 부인 이수자 여사는 저서 「내 남편 윤이상」에서 윤이상은 어린 시절 들었던 고향의 파도소리, “멀치떼가 많이 몰려 오면 신명이 난 어부들의 노래소리는 차츰 고조되어갔는데 그는 그 때의 그 노랫소리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멀리 두고 온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은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생의 원동력”이었다고 윤이상 선생의 심경을 전했다(이수자, 1998, 「내 남편 윤이상」(상), 창작과비평사, p.97에서 발췌).

도 소리는 나에겐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겐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1994년 귀국이 좌절된 후 베를린 병상에서 통영시민에게 보낸
윤이상의 마지막 육성 메시지

“윤이상은 고향인 통영에서 퍼 온 흙 한줌과 함께 여기 잠들어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윤이상의 묘비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음악당 건물 로비 벽면에는 음악원 교수진이 선정한 ‘사상 최고의 음악가’ 44명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이 중 20세기에 활동한 음악인은 조지 거슈윈, 벨라 바르토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윤이상 뿐이다.³⁾ 또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그가 작곡한 오페라 ‘심청’이 개막공연에 올랐다. 윤이상이 당시 독일인으로 귀화한 상태였지만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독일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의 개막공연을 윤이상에게 의뢰한 것은, 그들이 실로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변한다. 이렇듯 윤이상은 살아생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던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윤이상을 대하는 국내 사정은 달랐다. 그는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인 ‘동백림 사건(동베를린 간첩단사건)’⁴⁾에 연루되어 이후 사형 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다. 그에게는 조국의 안전을 위해하는 사상범이라는 불명예가 씌어졌고 옥고까지 치르게 되었다. 윤이상의 억울한 소식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독일 대통령과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한스 베르너 헨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 등 세계적인 음악인과 문화계 인사 200여 명은 한국 정부에 항의문서와 청원서를 보내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탄원과 석방 요구로 그는 복역 2년 후 196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다. 이후 곧바로 한국에서 추방되다시피 독일로 돌아가야 했던⁵⁾ 윤이상은 폐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그에게 ‘동백림 사건’이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사건으로, 분노를 치유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⁶⁾라고 할 만큼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된 울분의 사건이었다.

3) [부활하는 윤이상] 上. 타계 10주기 맞아 기념행사 봇물, 2005년 2월 20일, 이장직 음악전문기자, 중앙일보에서 발췌.

4) 『‘동백림 사건’이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1958년 9월부터 서유럽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반정부 지식인·유학생 등 194명이 동백림(동베를린)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 하면서 이적(利敵)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해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용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이 연루되었고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 출처:동백림사건 [The East Berlin Affair, 東柏林事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얼마나 오랫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슬프게 떠나왔습니까. ...해외에서 좋아서 사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서 사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떠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 “윤이상 음악은 고통있는 곳에”, 2006년, 3월 23일, 이승재(엘제이필름대표)·강태호·이용인 기자, 한겨레에서 발췌. 이 기사는 이수자 여사와의 인터뷰 기사로, 그녀는 당시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 의지대로 귀국 할 수도 없었던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과 심정을 전했다.

6) “‘윤이상의 예술혼’ 통영에 살어리랏다”, 2001년 12월 13일, 전원경 기자, 주간동아.

윤이상은 독일로 돌아간 후 국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독일인으로 귀화하게 된다. 하지만 만년까지도 한국 방문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1994년 한 문화재단이 서울에서 '윤이상 음악축제'를 기획하며 그의 귀국을 추진했다. 이번만은 성사될 것으로 모두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담은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⁷⁾ 윤이상은 조국에 사과와 반성할 이유가 없었다. 준법서약 작성을 거부한다.

윤이상은 1994년 시도된 방한 추진이 꼭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한다. 폐렴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귀국 시도였기 때문이다. 방한이 끝내 무산되자 이수자 여사는 "당시 선생이 받은 충격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베를린 근교 호숫가의 집 앞마당에 한반도 모양의 연못을 만들고, 집무실 벽에는 고향 통영 앞바다의 빛바랜 흑백사진을 걸어놓으며 수구초심이었던 윤이상. 1994년 마지막 귀국 시도가 좌절되자 폐렴을 앓고 있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이듬해인 1995년 11월 3일,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3) 윤이상 기념관 조성 과정

2003년부터 윤이상 음악당 건립이 화두가 되면서 음악당과 함께 윤이상 기념관 건립 추진도 진행되었다. 통영시는 윤이상과 관련된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도천동 148번지 윤이상 생가 옆 6,745㎡ 부지에 윤이상 기념관 및 공연장 건립 계획을 추진했고, 2009년 3월 19일 '도천테마공원'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기념관이 들어선 도천동 부지는 홍수가 나면 범람 하는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 매년 여름이면 침수 문제로 고초를 겪는 불량주거지였기에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마침 이곳이 윤이상의 생가 터와 가까워 시에서는 이왕이면 이곳에 '윤이상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기념관 조성 사업 역시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2003년에 계획을 추진했지만 음악당 건립과 유사한 연유인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 6년여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은 수차례 변경됐고, 공사는 시간이 갈수록 미뤄져 통영시의 대표적 장기 미진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기념관 이름마저도 '윤이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 '윤이상 기념관'이 아닌 '도천테마공원'이라고 등록되었다.⁸⁾

여러 난관 끝에 윤이상 기념관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통영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당초 4천 700㎡ 규모의 공원 면적을 6천437㎡로 늘리고, 공원 관리동을 '윤이상 기념관'으로 설계 변경하는 한편 윤이상 선생 유족과 접촉해 친필악보와 첼로 등 420여점의 유품을 기증받는데 성공했다. 이수자 여사는 "돈으로는 환산

7) "윤이상의 명예, 이젠 공식 회복시키자", 2006년 5월 1일, 경향신문., "윤이상 명예회복은 언제쯤", 2003년 4월 1일,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8) 당초 통영시 기획에서는 '윤이상 음악당' '윤이상 기념관'으로 명명하려 했으나 본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기에 중앙정부에서 '윤이상'의 이념문제를 지적하며 '윤이상 기념관'으로 설립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은 해줄 수 없다고 했고 따라서 통영시는 '윤이상 음악당', '윤이상 기념관' 대신에 '통영국제음악당', '도천테마기념관'이라고 시 조례를 만들어서 음악당, 기념관 사업을 진행하였다.

통영시는 꾸준히 '윤이상 음악당', '윤이상 기념관'으로 시설 명칭을 바꾸기 위해 노력중이며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7년 이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윤이상 선생의 유품 일부가 그가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워한 고향에 왔다"고 전했다. 윤이상 기념관 조성을 완성해 낸 J통영시장은, 이 기념관 사업에 있어 가장 큰 한계 요인은 시장이 선출직이고, 국가 예산으로 지어야 한다는 점으로 꼽았다. 즉, 윤이상 기념관의 경우 그를 둘러싼 이념 논란에 정부의 승인과 일부 보수적 성향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녹록찮았고, 또한 정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조달청 품목에다가 이를 신청해놓으면 이후 만약 일률적으로 성냥갑 같은 형태로 지어놔도 그걸 감수해야하는 현실에서, 때로는 차라리 안 짓는 것만 못한 수준의 건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 시장의 역할은,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건축가와 최대한 소통하고 행정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을 지원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기존에 추진 중이던 윤이상 기념관 설계를 직접 챙겼고, 다행히 훌륭한 건축가 민현식 氏도 만났다고 한다.

'윤이상 기념관'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당 해 준공된 전국의 수많은 공공시설물 중 발주 기관의 혁신적 노력이 가장 돋보인 건축물에 수여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 대상(대통령상)'에 선정되는 영예로 결실을 맺었다. 윤이상 기념관을 담당하는 이중도 통영국제음악재단 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이 기념관의 관람객 중 음악학도 다음으로 많은 집단이 건축학도들로, 건축 답사의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통영시와 건축가의 원활한 소통과 성실한 노력이 이 기념관을 우수한 건물로 완성시켰다.

훌륭한 외관과 더불어 전시관 콘텐츠 역시 화제가 되었다. 통영시와 윤이상평화재단은 2009년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북측으로부터 윤이상의 흉상을 기증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윤이상 흉상을 제작했었는데 그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었다. J 시장은 2005년 평양 방문 시 보았던 윤이상의 흉상을 떠올렸다. 북한 만수대 창작소가 제작한 이 흉상은 북한과 독일의 윤이상을 잘 아는 관계자들로부터 "고뇌에 찬 한 음악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작품이었다. 곧 한국과 북한의 원활한 문화 교류 협상으로 이 흉상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반입 결정을 보류하여 이 흉상은 인천항 세관창고에 9개월 동안이나 보관만 해놨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 흉상 반입을 허용키로 했을 뿐 최근의 남북관계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밝히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념관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윤이상 흉상과 전시실 내부
자 료: 진금주 촬영

4) 마치며

이상으로 윤이상이란 인물과 윤이상 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답사지는 대부분 진금주의 박사학위 논문에 도움을 받았다. 윤이상은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현대음악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 낙인이 찍힌 윤이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006년 동백림사건이 확대 과장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이상을 위한 시설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이념과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와 예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진금주, 「장소마케팅을 위한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의 조성과정」,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4. 동피랑 벽화 마을

정리 : 박사과정 3학기 김기현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동피랑길 100
- 소요시간 : 30~40분
- 문 의 : 푸른통영21사무국 055-649-2263 / 통영관광안내소 055-650-4681, 2570
- 홈페이지 : <http://www.cittaslow.krwww.dongpirang.org/>



그림 1. 동피랑 위치



그림 2. 동피랑 전경

1) 동피랑 벽화 마을

통영은 조선업의 성장으로 1960~7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비탈길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였다. 그 거주지가 세병관¹⁾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비탈 '동피랑'과 서쪽 비탈 '서피랑'이다. 동피랑 마을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과 태평동 일대의 산비탈마을로, 23가구가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 주거지역이었다. 마을 바로 앞으로 강구항과 바다가 보이며 중앙시장을 품고 있는 명당인 통영의 대표적인 산동네였다. '동피랑'이란 이름은 '동쪽'과 '비랑'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으로, '비랑'은 비탈을 의미하는 통영 사투리이다. '동쪽의 비랑'이라는 뜻의 '동피랑'으로 불리는 이 작고 오래된 마을은 산동네라는 인식과 주거환경까지 악화되면서 2007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전 까지만 해도 빈 집이 곳곳에 남아 있는 소외된 지역이었다.²⁾ 동피랑은 최근 몇 년 사이 통영의 새

1)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물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세병관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육지인 통영으로 옮겨오면서 지어진 객사건물이다. 세병관이란 이름은 당나라 시인인 두보의 시 「세병마」에서 가져온 것으로, 성인 남자의 키보다도 더 큰 현판의 글씨를 보고 있자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세병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 2010. 1. 15., 마로니에북스) 현재 경남 통영시 문화동에 위치한 세병관은 국보 제305호로 지정되어있다.

2) 송효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만들기: 통영 동피랑마을의 관광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11, p. 64.

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벽화가 그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주말이면 카메라를 든 여행객들로 붐비며, 신문과 잡지, TV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소외된 지역에서 주목 받는 지역으로 변모하기까지 마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2) 재개발의 바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작은 마을 동피랑은 성장을 이룩한 도심 속에서 또 다른 개발의 대상이 된다. 2006년 통영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노후한 마을을 철거하고 경관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충무공 이순신이 설치한 군영인 통제영(統制營)의 누각 '동포루(東砲樓)' 복원 및 주변 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 해 가을 통영시는 '동피랑 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열고 개발 계획 발표를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통영시는 마을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로 집값을 보상해 주겠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동피랑 마을의 주택은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이라 철거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다수였고, 이사를 하더라도 동피랑의 집값으로는 통영에서 방 한 칸 구하기 힘든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지역단체 '푸른통영 21 추진위원회'³⁾는 재개발 저지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시장에게 1년의 유보의 시간을 요청하였고, 도시 재생의 색다른 시선 '통영의 망루 동피랑의 재발견'이라는 사업을 시행했다. 먼저 바다에서 통영항으로 입항하다보면 높이 보이는 동네 동피랑이 지저분하여 도시 미관에 좋지 않다는 계발지지 의견측이 내놓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푸른통영 21'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는 동피랑 마을의 특성을 활용하여 각 주택들의 담장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사업을 구체화하여 '푸른통영 21'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골목문화를 보존하자"며 '색과 그림이 있는 골목'이라는 주제로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을 벌였다. 미술대학 학생과 일반인들 19팀 36명이 공모에 참여했고, 통영의 청소년문화모임인 '드러머'의 자원봉사로 주민동의에 걸쳐 일주일동안 19채의 집과 골목 담벼락마다 벽화가 그려졌다.



그림 3. 동피랑 마을의 벽화 분포



그림 4. 진의장 시장이 그린 벽화

3) 통영시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 의해 채택된 의제21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실행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은 정부와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이다. '푸른통영 21'은 통영의 지방의제21로,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 운동을 전개한다.(, 위의 글, p.64, 재인용.)

3) 동피랑의 벽

벽화로 꾸며진 동피랑 마을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마을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자 통영시는 마침내 동포루 복원에 필요한 마을 꼭대기의 집 3채만을 헐고 마을 철거방침을 철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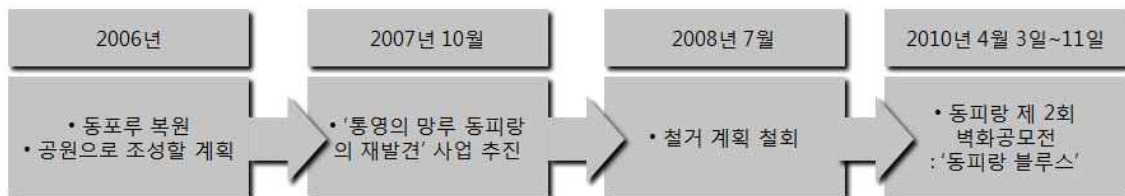


그림 5. 동피랑 마을의 벽화사업 추진과정

철거 대상이었던 동네는 벽화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하였다.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이다. '푸른통영 21'에서 동피랑 마을을 위해 근10년 간 일해 온 윤미숙씨는 이렇게 말한다.

동쪽에 있는 비탈, 거기서 맨 처음 만난 것은 벽이었다. 바람을 막는 벽, 웅색한 살림살이를 감추는 벽,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보전과 개발의 벽,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의 굳은 벽.⁴⁾

동피랑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장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일을 추진했던 '푸른통영 21'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야 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통영시와의 협상은 그런 대로 일단락이 되었다. '푸른통영 21'의 주요 목표는 '강제 철거'가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도시 마을 만들기'였다.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골목을 되살리고 또한 동피랑을 찾는 사람들이 쉬면서 강구향을 바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모든 과정 속에는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빠지지 않았다. '벽화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어떤 집은 자신의 담벼락을 내주기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어떤 집은 구체적인 그림 내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⁵⁾

공모 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모전에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행사 주최자인 '푸른통영 21'은 경험의 부재로 첫째 벽화전에서 필요한 페인트도 준비하지 않은 채 참여 작가들을 불러 모아 덕분에 작가들은 동피랑 언덕을 수차례 오르내려야 했다. 그림을 그린다고 일이 끝나는 상황도 아니었다. 자신의 집 벽에 그린 그림을 보고 관심을 갖는 주민도 있었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당시 통영시장이었던 진의장 시장은 법대 출신이지만 프랑스에서 초대전을 열기도 한 화가였다. 주최측은 이러한 과정에 행정의 수장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마을의 한 벽면을 그림으로 채워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했다. 진 시장은 그에 응했고 오방색으로 가득 찬 대형 벽화를 그렸다.(그림 4) 그는 이어 골목집 재래식 화장실 벽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날 페인트가 채 마르기 전에 이 그림은 지워지고 없어졌다. 수소문 끝에 드러난 범인은 다름 아닌 주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왜 그러셨냐는

4) 윤미숙, 『춤추는 마을 만들기』, 통영: 남해의 봄날, 2015, p. 26.

5) 윤미숙, 위의 책, p. 40.

질문에 “누가 화장실 벽에다가 기림도 아인 거를 얼룩덜룩 보기 싫거로 항칠(낙서)을 싸리 해놔서 흰 뽕끼 얻어다가 내가 다 지아뻘다”라고 답하셨다.⁶⁾

여러 시행착오 끝에 변모한 동피랑 마을은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과 강구 안 바다 풍경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영시의 명소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2008민관포럼 최우수상, 2008전국 마을 만들기 대회 우수상 등을 받았다.

4) 2년마다 열리는 벽화전

1차 벽화전에 이어 2010년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동피랑의 2차 벽화전이 열렸다. 주제는 ‘동피랑 부르스’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 자유와 희망을 붓의 선율로 표현해보자는 의미를 갖는다. 각종 매체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알려진 탓인지 2차 벽화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41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벽화전에 참여한 모든 팀들은 벽화를 그릴 뿐 아니라 참가기를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벽화는 단순히 그림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작가들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벽화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벽화전의 특성상 다른 작가를 위해 벽을 내어주어야 하며 그 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2014년 봄, 네 번째 벽화전이 시작되었고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벽화전은 국제 비엔날레로 발돋움 하고자 하였다. 초빙된 김윤환 미술감독은 국제전 형식으로 벽화전을 기획했고, 이에 일본, 프랑스, 태국, 독일, 이집트에서도 작가들이 벽화전에 참여하기 위해 동피랑을 찾았다.



그림 6. 동피랑 벽화 마을 입구



그림 7. 포토존으로 유명한 날개 벽화

5) 보상과 참여

동피랑 마을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2010년 무렵부터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급격하게 침해당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밤낮 없이 사진기를 들이댔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며,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얼마 되지 않는 마을의 7가구가 보상을 받고 떠나기로 했다. 이에 ‘푸른통영 21’은 통영시에 매입한 집들 다섯 가구는 작가 촌으로 만들고, 두 가구는 지역민의 생계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행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6) 윤미숙, 위의 책, p. 44.

그러나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침해받는 남아있는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 회의를 통해 주민협의회는 당초 지역의 단체가 건물을 지어 '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그 공간은 동피랑 맨 꼭대기에 위치하여 관광객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주민들은 기념품이라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원했다. 주민들에게 보상보다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은 지역의 많은 갈등 끝에 받아들여졌다. 지금 이곳은 동피랑 매점으로, 동피랑 협동조합의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얻은 매출은 동피랑 주민 80가구가 현물로 나누어 가지며, 마을의 수도세를 그 소득으로 충당한다고 한다.⁷⁾

6)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많은 사람들은 동피랑 마을을 관광 명소로 알고 찾아가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피랑은 가난하고 배움 앓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살고자 한 작은 마을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본래적 의미보다도 타 지역에서는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한 예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타도시의 행정 관계자들은 벤치마킹을 위해 동피랑을 방문하고 그들의 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적용하고자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 정부의 시도는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고 시행하는 일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을은 많은 고비를 넘기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철거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공간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문객들로 인한 소음은 동피랑이 유명해질수록 더해 갈 것이며, 경제적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외부 자본으로 인한 문제점도 주민들이 언젠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지도 모른다. 2015년에는 동피랑 예산 삭감관련 기사⁸⁾와 더불어 동피랑을 만드는데 힘쓴 윤미숙의 갑작스런 해고 통지 기사가 나왔다.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일견에서는 2014년 6.4 지방선거이후 행정 수장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설도 있다.⁹⁾ 논란이 일자 2015년 4월 19일 경남지방노동위는 윤 전 사무국장이 낸 '통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¹⁰⁾ 복직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지만 당장 동피랑 마을과 관련하여 마을이 또 다른 벽에 맞닥뜨려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6년은 다섯 번째 동피랑 벽화제가 열리는 해이다. 현재 '동피랑'¹¹⁾과 '푸른통영 21'¹²⁾ 홈페이지는 리뉴얼 작업으로 폐쇄된 상태로 벽화전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로의 동피랑을 기대해 본다.

7) 윤미숙, 위의 책, pp. 77~78.

8) <http://www.knn.co.kr/69140>

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9254

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50421.22010192646>

11) <http://www.dongpirang.org/>

12) <http://www.tyagenda21.or.kr/>

사람들은 동피랑에 벽화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그러나 동피랑에는 벽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피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무는 멋진 관광지일지 모르나,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휴식처다.

동피랑은 물론 어디를 가든 마을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그 여행 자체도 더 풍성해질 것이라 믿는다.
(윤미숙, 『춤추는 마을 만들기』, p. 92)



- 참고문헌 -

- 송효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만들기: 통영 통피랑마을의 관광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11.
- 정아름, 「문화도시 전략으로서의 '장소만들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윤미, 「국내 벽화마을만들기의 성공요건 분석」,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은경, 「도시문화프로젝트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도시문제』, 47(52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 윤미숙, 『춤추는 마을 만들기』, 통영: 남해의 봄날, 2015.

5. 남망산 조각 공원

정리 : 석사과정 2학기 이정민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남망길 139
- 개 설 일 : 1980년 10월 18일
- 개방시간 : 00:00~24:00
- 문 의 : 055-650-4681
- 홈페이지 : <http://www.utour.go.kr>



남망산 조각 공원은 1997년 미륵도의 도남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호동 남망산 자락에 조성되었다. 충무공원이라고도 불리며 한려수도의 절경을 바라 볼 수 있는 이곳은 평지가 아닌 산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해 해안과 그 접경을 이루면서 주위환경을 잘 이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통영의 명물인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1997년 국내외 정상급 조각가 15명을 초청한 통영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현장에서 제작된 조각품을 영구 전시한 작품들이다.

조각공원은 기능면에서 시민의 예술적 감각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뿐 아니라 일반적인 조각 작품이 갖지 못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남망산 조각공원은 5,000여 평의 넓은 공간속에서 한려수도의 절경을 바라보며 편안한 동선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조각공원의 구성요소에서 관람 동선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방대한 면적 위에 많은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관람속도가 느려지고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람동선 외에도 특수한 위치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동선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먼저 관람체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며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품 간의 공간을 여유 있게 두어 시각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다양한 동선 설정으로 관람 위치의 변화를 시도하는 구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망산 조각공원의 동선 배치는 이러한 동선 관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일본작가인 이토 다카미치의 '4개의 움직이는 풍경'을 시작으로, 국내 작가 김영원의 인체군상 '허공의 중심', 스웨덴 조각가인 에릭 디트망의 '최고의 순간을 위해 멈춰진 기계', 심문섭의 '은유-출항지', 이우환의 '관계항-꿈꾸는 언덕',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통영 관광청에서 참조한 아래 지도를 바탕으로 작품의 간략한 정보를 설명한다.

1) 작품소개



- ° 작가명 : 이토 다카미치
(Ito Takamichi)
- ° 작품명 : 4개의 움직이는 풍경
(Motion Pictures of Four Landscapes)
- °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모터
(stainless steel, motors)
- ° 규 격 : 12 x 3.6 x 3.8 m

이토 다카미치의 작품 '4개의 움직이는 풍경'은 하늘과 바다와 대지, 인간과 인간들이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을 상징한 키네틱 조각이다. 수직의 스테인레스 판들이 수평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선명하게 반사되는 풍경을 담는 이 작품은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가 특징이다.



- ° 작가명 : 김영원
- ° 작품명 : 허공의 중심
(The Central point in the air)
- ° 재 료 : 브론즈, 스테인레스, 스틸
(bronze, stainless steel)
- ° 규 격 : 15.8 × 1.73 × 0.55 m

국내 작가 김영원의 '허공의 중심'은 인체조각 군상으로,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의식과 무의식 등 이원론적 사고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적인 인체묘사가 특징인데, 이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이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작가명 : 헤수스 라파엘 소토
(Jesus Rafael Soto)
- 작품명 : 통과 입방체
(A Barrel and a Possible Cubic Shape)
- 재 료 : 비닐, 철재
(vinyl, metallic material)
- 규 격 : 10 × 4.5 × 4 m

베네주엘라 출신의 헤수스 라파엘 소토 작품으로, 수직으로 길게 늘어진 비닐 가닥 사이를 관람객이 직접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람객이 이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작품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시공간의 개념을 체험하는 것이다.



- 작가명 : 질 투야르 (Gilles Touyard)
- 작품명 : 잃어버린 조화/물두
- 재 료 : 나무, 고무, 모터
(wood, rubber, motors)
- 규 격 : 14.5 x 1.5 x 2.6 m

여러 토막의 통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인다. 이 작품은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체의 반복된 움직임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기보다는 주체가 상실된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 ° 작가명 : 에릭 디트망 (Erick Dietman)
- ° 작품명 : 최고의 순간을 위해 멈춰서 있는 기계
(The Machine shopping for the best moment)
- ° 재 료 : 철, 기성품
(iron, secondhand articles)
- ° 규 격 : 3.3 x 5.5 x 6.8 m

철 구조물 위에 다양한 기성품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조각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한국적 샤머니즘에 기인한 것으로 복을 기원하기 위해 돌을 쌓아올리는 방식을 조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계단은 하늘을 향한 동경의 세계를 상징하고, 미지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무한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다.



- ° 작가명 : 앤터니 고클리
(Antony Gormley)
- ° 작품명: 출산 (Birth)
- ° 재 료: 철 (iron)
- ° 규 격 : 0.8 x 2.3 x 0.7 m

영국 출신의 조각가 앤터니 고클리의 작품으로 출산을 형상화 하였다. 두 개의 인체가 결합된 철 주물 조각은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인체가 결합된 구성으로, 정확한 인체비례와 인체묘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인체라는 소우주를 통해 초자연적인 우주의 원리와 생명력, 영적인 에너지를 은유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와 탄생의 계기를 표현하고 있다.



- 작가명 : 황용핑
(Huang Yong ping)
- 작품명 : 뒤집힌 무덤
(The Overturned Tomb)
- 재 료 : 화강석 (granite)
- 규 격 : 4.35 x 1.9 x 3.8 m

중국 작가 황용핑의 작품 '뒤집힌 무덤'은 화강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거북모양의 중국 남방식 무덤을 거꾸로 엮어놓은 형상을 하고 있는 조각이다. 거북은 장수와 영원을 상징하는데, 이를 통해 죽음을 부정하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묘지의 형태를 뒤집음으로써 죽음을 부정하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수 할 수 있는 거대한 생명력을 암시하고자 한다.

- 자료출처 -
통영시민문화회관

6. 전혁림 미술관

정리 : 석사과정 2학기 김민주

-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봉평동 189-2번지
- ° 관람시간 : 평 일) 10:00~17:30 (하절기 3월 ~ 10월)
10:00~17:00 (동절기 11월 ~ 2월)
휴관일) 1월1일, 구정, 매주 월요일, 화요일
- ° 문 의 : 055-645-7349
- ° 홈페이지 : www.jeonhyucklim.org

1) 화가 전혁림

예로부터 통영은 문화와 예술의 고향으로 불렸다. 시인 유치환, 김춘수를 비롯해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와 김용익, 거기에 이중섭과 전혁림까지 대한민국 대표 예술인들이 이곳 출생이거나 이 땅에서 살며 예술혼을 길렀다.

1915년 통영에서 태어난 전혁림은 한 번도 정규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 없이 혼자서 그림을 배웠다. 하지만 한국 전통색인 오방색을 이용한 강렬한 색채와 비정형의 독특한 추상화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색채의 마술사'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프랑스의 앙리 루소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혁림 화백은 1949년 국전에 입선해 알려졌다. 중앙 화단과 거리를 두고 고향인 통영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다. 그러다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면서부터 한국 미술계의 주목과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가 그의 나이 87세였다.

전혁림 화백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그로부터 3년 후인 2005년의 일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기도 이영 미술관에서 열린 전 화백의 개인전 <구십, 아직은 젊다>전을 관람한 후, 세로 2.8미터, 가로 7미터의 초대형 그림 「통영향」을 주문 구입해 청와대 인왕홀 벽에 걸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 모습은 지상파 방송



3사 뉴스에 동시에 보도되었다. 그 후 전혁림 화백은 '통영의 화가'에서 '한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고, 그의 삶과 예술은 언론과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아흔도 젊다고 생각했던 전 화백은 어쩌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자신을 청춘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2) 전혁림 미술관

통영의 미륵도의 미륵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백이 1975년부터 30년 가까이 생활하던 집을 헐고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신축한 건물로써 2003년 5월 11일 개관하였다.



건물의 외벽은 전화백의 작품 다섯 점과 아들 영근의 작품 다섯 점을 선택하여 20x20cm의 세라믹타일로 제작, 7,500여장의 조합으로, 통영의 이미지와 화백의 예술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3층 전면의 벽은 화백의 1992년의 작품, 창(Window)을 타일조합으로 재구성한 가로10X세로3미터의 대형 벽화로 구성되었고 이 대형 타일 벽화는 이 건물의 상징과도 같다.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아담해서 조용히 그림 감상하기에 좋은 규모다. 짙은 갈색 마룻바닥에 하얀 벽면 그리고 천장에 할로겐 조명이 설치된 평범한 전시장 모습이다.

벽면에는 화백이 생전에 그린 크고 작은 추상화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푸른색의 그림들이 유독 많은데, 생전에 '코발트블루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전혁림 화백은 통영 앞바다의 색을 즐겨 썼다. 70~80년대만 해도 한국 화단은 리얼리즘과 모노크롬 계열로 양분되어 있었다. 단색화로 불리는 완전한 추상이 주류였던 시기에 시대정신을 담은 사실주의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국내 미술계는 완전히 양분되었고, 작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오로지 작가정신으로 무장한 채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몇몇 작가들이 있었다. 전혁림 화백도 그 중 한 사람이다. 화백은 구상과 추상을 마음껏 넘나들며 한국 민화에서 따온 오방색을 서양화 물감 도구로 표현했다.



평생을 부산과 통영 두 항구 도시를 오가며 활동한 전혁림의 그림 속엔 유독 바다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바다의 화가'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그가 그린 바다의 모습은 이렇게 어른의 시각으로 절대 해석 불가능하지만 어린아이의 상상 속에 나올 법한 재미난 풍경이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나오기 힘든 영상이기도 하다.

바다를 표현한 색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랑이나 청록이 아니다. 강렬하면서도 정숙한 적색, 기운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청색, 활기찬 황색, 그리고 진중하고 깊은 흑색이 하얀 바탕의 화면 위에 서로 대치가 되면서도 동시에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로 오행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오방색인 것이다.

3) 미술관 내부

2층으로 향하는 층계에도 통영의 푸른색이 덧칠해져 있어 인상적이다. 2층은 화백의 작품뿐 아니라 유품과 각종 자료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작품이 실린 잡지와 화백이 생전에 사용한 붓, 팔레트, 모자와 옷가지, 실내화와 작업용 간이 의자 등 화가의 삶을 상상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생전에 화백의 삶이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증거품인 것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받은 은관문화훈장과 작가 사망 당시 조각가 김익성이 제작한 화백의 '데드마스크'도 같은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화백은 2010년 5월 25일 타계했고, 문화

훈장은 같은 해 10월에 받았다.

2층 전시실을 관람하면 벽에 걸린 낡은 흑백사진 한 장을 볼수 있다. 아래엔 '1945년 9월 통영문화협회 야유회(미륵산 기슭)'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유치환, 전혁림, 김춘수, 윤이상....., '통영문화협회'는 8.15해방 직후 통영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문화운동단체로 문학부, 연극부, 미술부, 음악부 이렇게 네 개의 부서로 이루어졌다. 회장을 맡은 시인 유치환을 중심으로 시인 김춘수가 총무를 맡았고, 소설가 김용익, 작곡가 윤이상과 정윤주, 배우 서성탄, 한글학자 옥치정, 서양화가 전혁림 등 쟁쟁한 인물들이 그 회원이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의 고향에서 문화예술운동을 통한 민족정신의 양양'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제의 눈을 피해 숨겨놓았던 문화재를 발굴해내는 한편, 미술 전시회와 문학 강연회 한글 강습회 등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을 개최해 통영 문화예술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다.

3층 전시실로 가려면 테라스 같은 외부로 일단 나와서 다시 계단을 올라야 한다. 이 계단 역시 통영의 푸른 바다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외벽을 장식한 작품 타일들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볼 수도 있게 꾸며놓은 테라스에는 나무 벤치들이 놓여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미술관 뒤편 미륵산의 초록색과 계단을 칠한 푸른 바다색, 거기에 전시실 출입문의 빨간색까지 모두가 의도적으로 선택된 색임이 분명했다.

3층 전시실에는 화백의 아들이자 현재 전혁림 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전영근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영근 작가는 아버지와 비슷한 듯 다른 화풍으로 대형 캔버스에 그린 추상화뿐 아니라 도자기와 판화, 핸드백과 같은 아트 상품까지, 더 다양한 매체로 시도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혁림 미술관은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전혁림, 전영근 부자 화가의 작품을 응용한 예쁜 도자기 머그컵부터 찻잔 세트, 엽서 등 아기자기한 아트 상품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이 아트샵 수익금이 바로 미술관 운영 기금이기도 하다.

4) 통영과 예술가

통영이란 지명은 원래 조선시대 통제영(삼도수군통제영)에서 유래했다. 지금의 해군사령부에 해당하는 통제영은 임진왜란 중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수군 간의 지휘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1593년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면서 1895년까지 유지됐다. 통제영은 삼도를 관할하다 보니 삼도의 문화가 절로 뒤섞였고, 한양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최신 문물과 정보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12공방은 통제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직접 제조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관아의 공방을 말한다. 처음엔 군수물자 제작에 한정되었지만 통제영이 번성하자 나중에는 부채, 장식, 자개, 그림, 가구, 장식품 등 다양한 생활 소품까지 만들어 백성들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통영갓, 나전칠기, 부채 등 이곳에서 생산한 최상급 공예품들은 임금님께 진상을 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고 한다. 그러니 12공방에는 팔도 최고의 장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되었고, 요즘 말로 하면 부채 전문가, 모자 전문가, 금속공예 전문가, 가구 전문가, 음식 전문가, 무기 전문가 등 조선 최고의 기술과 실력을 가진 기능인과 예술가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 통영은 대표적인 수산업 도시로 성장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반 이상이 통영에서 났다고 한다. 수산업으로 번성한 통영은 돈, 사람, 물건, 예술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예향의 도시가 된 것이다. 12공방 장인의 피를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과 자본이 풍성한 물질적 요인, 거기다 천혜의 자연 풍광이 주는 환경적 요인까지 이 삼박자가 바로 최고의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자양분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이은하 저, 숲으로 간 미술관, 아트북스, 2015.

박순기 저, 신 구조의 구상과 사실-서양화가 전혁림, 미술세계, 1987.

전혁림 미술관, <http://www.jeonhyucklim.org>

7. 박경리 기념관

정리 : 석사과정 4학기 황혜진

-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신전리 1429-9번지)
- ° 규 모 : 지상1층, 지하1층(부지 4,465㎡, 연면적 1,337㎡)
- ° 사업기간 : 2008년 8월 ~ 2010년 4월 소요예산 : 총사업비(4,897백만원)
- ° 주요시설 : 다목적실(98.87㎡), 사무실(42.79㎡), 전시실(288.97㎡), 영상실(27.61㎡), 자료실(50.23㎡)

1) 박경리 생애



박경리(1926.10.28.-2008.5.5.)는 <김약국의 딸들>과 <토지>의 현대장편소설의 대가인 작가로 통영에서 태어났다. 박경리의 부모님은 각각 아버지는 열네 살, 어머니는 열여덟 살에 조혼하여 옛 통영 경찰서(지금의 충무데파트 자리) 살았다. 부모님은 22살에 박경리를 낳고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갔고, 이후 박경리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통영에 지금의 통영초등학교의 전신인 제일국민학교에 다녔었다. 박경리는 1945년 제일여고를 졸업하고 이후 서울로 떠난 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투옥되고,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때 남편 혼자 월북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아들을 잃었다.

박경리가 경험한 불행은 <김약국의 딸들>과 <토지>에 영향을 주었고 이 작품들은 여성들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족사의 불행과 몰락을 다루고 있다.

그림 1. 박경리 인물사진

서울에서 평화신문과 서울 신문의 문화부 기사를 하다 1955년 「계산」을 출판하였고, 1956년(31세) 김동리 작가의 추천으로 등단하였다. 등단 이후 2004년까지 통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1962년(37세) 작가의 외갓집 이야기가 바탕이 된 <김약국의 딸들>(을유문화사)을 완성했다. 또 1969년(44세) 대하소설 <토지>를 시작하여 1994년(69세) 8월 15일 20권으로 완성하였다. 박경리는 현대문학에서 조선 말기 이후 한국사회의 근대화에서 가족의 구성의 변화와 경남 방언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풍속을 탁월하게 재현하며, 군더더기 없는 정갈하고 담백한 문체를 정립한 의의가 있다.

2) 박경리 문학 속 통영

박경리 문학의 근간은 고향인 통영이다. <토지>는 전남 하동이 배경이지만, 박경리는 하동에 글을 쓰기 전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배경은 전남 하동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거제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것이다. 경상도에는 만석꾼이 흔치않아 만석꾼이 많은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고 싶지만, 전라도를 잘 몰라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위치한 하동을 배경으로 하였다고 밝혔다.¹⁾

한편 통영을 배경으로 한 <김약국의 딸들>은 고종의 등극에서부터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옛 봉건지주였던 김성수 가문의 몰락과 딸들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다. <김약국의 딸들>속에서 통영은 과거 문화적, 예술적으로 우수하여 그림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이상향인 고향으로 나타난다.²⁾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통영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림 2. 통영 항구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출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만큼 바다 빛은 맑고 푸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배나 짚어먹고 사는 이 고장의 조야하고 거친 풍토 속에서 이처럼 섬세하고 탐미적인 수공업(갯, 소반, 경대, 문갑, 두석장, 나전칠기 등)이 발달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바다 빛이 고운 탓이었는지 모른다. ³⁾

이 서문에서 보듯 박경리는 통영이라는 공간의 우수한 지역적인 풍물과 향토적 색채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1) 조윤아, 「박경리 소설 속 통영 공간의 상상력」, 『비평문학』, 2009, p. 305.

2) 방금단, 「그리움의 서사-<김약국의 딸들>,<파시>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 25집』, 2012, p. 214 참고.

3)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북스, 2013. p. 5.



그림 3. 새터 기념물

새터 아침장은 언제나 활기가 왕성한 곳이다. 무더기로 쏟아놓은 갓 잡은 생선이 파닥거리는 것처럼 싱싱하고 향기롭다.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규환(叫喚) 속에 옥색 안개 서린 아침, 휴식을 거친 신선한 얼굴들이 흘러간다. 삼면 바다에서는 기관선으로부터 통구멍이(곤도라 비슷한 한두 사람이 타는 작은 배)까지 해초, 생선을 실은 어부들이 바다의 새벽을 뚫는다.⁴⁾

통영은 곳곳에 <김약국의 딸들> 속에서 묘사된 곳에 기념물을 설치하였는데, 한 예로 새터(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메워서 물려낸 장소)가 있다. 서술에서 통영이라는 어촌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하지만 이후 소설 속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 중 통영은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의 흥취가 사라지고 돈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전통적 공동체적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다. 통영은 자본을 기반으로 형성된 타락한 신흥세력들이 부흥하게 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며, 결혼을 꿈꾸며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딸들은 남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다.

이는 작가의 통영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 투영된 것이다. 2004년 마산 MBC창사 35주년 기념특집 <토지>완간 10주년 특별 대담에서도 통영에 관해, <김약국의 딸들>의 서문과 유사한 말을 하였다.

내가 통영에서 태어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친구들과 세병관⁵⁾ 교실 칠판에 빨간 분필로 '대민국독립만세'라고 쓰고 일본을 욕하는 글도 썼다. 그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해저터널(다이코보리), 충렬사, 세병관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민족주의를 배웠다. 통영에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난 것은 이순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순신은 덕장이면서 예술가다. 임진왜란 당시 통영은 한촌(閑村)이다. 해군본부(우수영)가 들어서면서 8도의 장인들이 모여들었다. 기술자(쟁이바치=예술가)들이 다 모였다. 통영은 기후, 먹거리, 풍광이 아름다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놀러 앉아 소목장, 입자장, 선자장, 주석장이 되었다. 이들이 통영예술의 토양이었다. 특히 '통영소반'은 특별한 것이다. 통영의 자부심이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작가에게 큰 충격을 준다. 통영은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다. ⁶⁾

이처럼 박경리는 고향인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와, 수공업이 발달하고 이순신과 다양한 예술가들이 배출된 문화적으로 우수한 곳이자, 유년기시절 민족주의를 배운 긍정적인 곳으로 말하고 있다.

4)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 북스, 2013, p. 283.

5) 세병관은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곳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육지인 통영으로 옮겨오면서 지어진 객사건물이다

6) 박경리 기념관 홈페이지

하지만 박경리 또한 작중 인물들처럼 고향을 떠난다. 에세이집 <생명의 아픔>(2004)에서도 통영에 관해 “고향이란 인간사와 풍물과 산천, 삶의 모든 것의 추억이 묻혀있는 곳이다. 고향은 내 인생의 모든 저산이며 30여 년간 내 문학의 지주요, 원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30년, 원주에서 5년 간 뜨내기 생활을 하며 나는 고향을 찾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자신의 가난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처럼 실제로 통영은 작가에게, 작품의 인물들에게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지역이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이상향과 같은 고향으로 여겨진다.

3) 박경리 기념관

박경리를 기념하는 곳은 현재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 원주의 토지문화재단과 박경리 문학공원 세 곳이 있다. 박경리 기념관의 걸립의의는 홈페이지에서 “박경리 선생의 고향으로 선생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걸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기념관에서는 박경리의 생애연보와 유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박경리 기념관 주변에는 박경리 공원과 박경리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4. 박경리 생애 연보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 북스, 2013.

박경리, 『생명의 아픔』, 이룸, 2004.

방금단, 「그리움의 서사-<김약국의 딸들>, <파시>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 25집』, 2012.

조윤아, 「박경리 소설 속 통영 공간의 상상력」, 『비평문학』, 2009.

박경리 기념관 홈페이지 <http://pkn.tongyeong.go.kr>

8. 중앙 전통 시장

정리 : 박사과정 4학기 조우경

-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중앙시장1길 14-16
- ° 개 설 일 : 1980년 10월 18일
- ° 시장면적 : 12,000평
- ° 상 인 수 : 425명
- ° 문 의 : 055-650-4680~2
- ° 홈페이지 : <http://www.통영중앙시장.com>

1) 통영의 상업

조선 후기 통영은 상업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앙시장은 상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선후기의 문헌인 <통영지(규장각도서 12186)>에 따르면 “城 아래의 시장터가 원래 협소해서 다 수용하지 못했는데 채동건 통제사가 임신년(1872년)에 강구를 넓게 새로 매립하여 많은 백성들이 장을 보는데 편리하게 했다.” 또한 시장에는



“미전(米廩) 35곳, 포목전 23곳, 물화전 17곳, 남초전 20곳, 해삼도가(海蔘都價) 8곳이 있었으며, 해삼도가는 거제 고성 남해를 근거지로 하는 나무, 야채 상인들과 오랫동안 교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4개의 상점과 해삼도가의 취급품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말뜻으로 보아 미전은 쌀과 기타 곡식을, 포목전은 베와 무명 등을, 물화전은 각종 잡화를, 남초전은 담배를 각각 취급했던 커다란 상점이었고, 해삼도가는 해삼도매상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4개의 상점과 도가가 위치했던 곳은 통영성의 남문 밖, 즉 현재의 중앙시장 한복판이며, 이들이 바로 중앙시장의 효시이다.

2) 통영 상업의 기원과 발달

(1) 조선시대

통영의 상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발흥했는지는 관련 사료가 없기 때문에 분명치 않지만 삼도수군통제영이 통영에 설치된 선조 37년(1604년)경부터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통제영 본영이 설치된 통영항은 삼남 물자의 집결지였을 것이다. 이곳에 조선수군의 총본영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군영 수요물자들이 배에 실

려 주로 강구를 통해 유입됐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도착한 군수물자는 통제영 관아의 각종 창고로 들어갔다. 일부 원자재는 당시 전국에서 선발돼 통제영 12공방에 상주해 있던 기술자들이 제품화했고, 이중 일부는 조정에 정기적으로 진상됐다. 진상품도 주로 강구를 통해 배로 실려 나갔다고 한다.

따라서 통제영 성문 밖에는 자연스레 큰 시장이 형성됐을 것이다. 관련 사료에 의하면, 통제영 시대의 초기에는 '동문 밖'(태평동과 정량동 접경지)과 '북문 밖'(옛 통영상고 뒤편)에 시장이 있었는데, 후기에 '남문 밖'(현 중앙시장)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특히, <통영지 규장각도서 10876>의 '장시(場市)'편을 보면 당시의 시장 모습이 꽤 상세히 묘사돼 있다. "시장터는 옛날 동문 밖 비석정(碑石亭) 너머의 변두리에 있었는데, 중년에 남문 밖으로 옮겨 설치했다. 매월 초 이틀에 개시(開市)하여 5일 간격으로 월 6차례 장이 섰다"는 기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통영시장은 매월 2일, 7일, 17일, 22일, 27일에 열리는 장인 '2.7장'의 정기시장이었다.

또한 당시 통영시장 상권의 중추역할을 했던 4전, 즉 4대 상점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미 전 : 남문 밖 성 아래에 '가가(假家:임시로 지은 집)'가 수백여 칸이 있는데 영남과 호남 연안의 상선들이 곡식을 싣고 와서 오랫동안 정박한다.
- ② 포목전 : 남문 밖에 있는데 5일 간격으로 개시하고 가가는 별로 없으며 영남과 호남에서 온 상인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
- ③ 물화전 : 남문 밖 해안도로 위 아래에 있는데 가가가 50여칸이고 양경(兩京:중국의 수도 동경과 남경을 통칭)의 물건이 오랫동안 매매된다.
- ④ 남초전 : 남문 밖 100보 지점에 있으며 5일 간격으로 개시하고 가가는 별로 없으며 영남에서 온 상인이 수백여 명이다.

위와 같은 상세한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 통영시장의 성격은 순수한 의미의 장시 즉 '보통 시장'이 아니라 통제영의 보호를 받고 있던 대규모 '관설시전(官設市廛)'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통영시장에는 일반적인 장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게가 수백여 칸이나 설치돼 있었고, 취급물건도 서울의 시전처럼 상점별로 전문화되어 있었으며 장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축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흥직의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시는 시전과 달리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상인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생활필수품을 교역하던 곳이었다. 또한 난매자(사사로이 판매하는 자)의 경우는 발각되면 국가에서 상품을 몰수하거나 체형을 가하는 등 엄격히 통제하여, 국가에서 허가한 상품 외에는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도 조선정부에서는 각 상점들의 이익 정도를 헤아려 응분의 국역(國役)을 부담케 했는데 국역은 최고 10푼(分)에서 최하 1푼까지로 모두 30전이 넘었으며 이를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고 했다.

당시 유분각전으로는 포전(베를 파는 가게), 면포전(무명을 파는 가게), 상전(잡화가게), 연초전(담배가게), 어물전, 선전(비단전), 지전(종이가게) 등 30여전이 있었다. 한편 가난한 상점은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 하여 국역을 지지 않았다. 무분각전으로는 채소전, 모전(과일가게), 염전(소금가게), 잡철전(쇠붙이 가게), 세물전(혼인이나 장례 때 쓰는 물건을 빌려주는 가게) 등 무수히 많았다. 이 같은 고증으로 미루어 당시 통영시장의 4대 상점 중 포목전과 물

화전, 남초전과 해삼도고는 국역을 지던 유푼각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푼각전에서 팔던 상품은 조정에서 허가한 것이었고, 상품독점매권(난전권)이 부여되는 등 국가적 보호를 받았을 것이므로 통제영시대 남문 밖에 있던 통영시장은 단순한 장시가 아니라 통제영에서 설치하고 국역을 부과했던 관설시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옛 지도는 당시 통영시장의 위치와 규모 등을 생생히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영지와 같은 도서자료 못지않은 훌륭한 문헌자료이다. 특히 1985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 통영지도는 제작연대가 확실하고 주요 관아 외에 통영시장 등 주변 시설이 잘 표현돼 있는데, 이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미전이라 표기된 2동의 긴 초가장옥(草家長屋)이 있고 장옥의 내부에는 여러 개의 기둥으로 칸이 나뉘어져 있다. 또 그보다 규모가 작은 이름 없는 초가장옥 1동이 따로 서 있다. 당시 미전은 남문 앞에서 시작해 동암문 앞까지 뻗어 있었다.

남문은 현재의 통영시 문화동 150-6번지 도로변 사거리 중앙 그리고 동암문은 현재의 태평동 504번지 도로 중앙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으니 당시 미전의 규모가 대단히 컸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전 한쪽에 있는 이름 없는 초가장옥 1동은 앞서 서술한 통영지의 기록으로 미루어 아마도 포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화전은 남문 입구 옆에 있었던 것으로 지도상에 분명히 표기되어 있으며 다른 상점과 달리 기와지붕을 얹고 있었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이었다. 또한 이 지도상에는 시장 바로 앞바다에 큰 돛을 단 장배(장사배) 4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영지>(규장각도서 10876)의 기록에 의하면 장배는 고성, 거제 창원 하동 곤양 김해 등 모든 읍에 있었으며 통영인이 행상선을 따라 그 읍에서 생산된 물자와 거래하는데 5일 간격으로 시장을 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서지와 지도 등의 사료에 나타난 각종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통제영 시대 통영시장은 대규모 관설시전으로서 상인들이 국역을 부담했을 것이며, 통영시장이 매일 열리는 상설시가 아니라 한 달에 여섯 번 열리는 5일장이었다는 점에 따라서, 통영강구를 드나들던 장배들도 통제영 군영수요물자가 긴급히 반입돼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2.7일에 맞추어 출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영시장은 '5일장의 장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강구가 대량의 군수물자를 매개로 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만큼 그 시

장 규모는 인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가장 낮은 단계의 '소시장'이 아니라 도매업도 겸한 '지방중심시장'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통제영에 지속적으로 입출되던 대량의 군수물자 덕분에 통영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번성했던 통영상업은 1895년 통제영이 폐영되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2) 일제강점기

통영의 상업은 통제영 폐영 후 일시적인 침체현상을 겪다가 개항 이후 외국상인자본이 국내에 침투되고 특히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의 통영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1915년에 간행한 <통영군안내> 인구편의 기록에 의하면, 1913년 현재 통영군에 일본인이 2천633명이나 살고 있었으며 당시만 해도 통영의 상권은 이미 일본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유통구조는 근대적 상업조직과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영의 상인은 중앙시장 등지에서 겨우 일상용품을 거래하는 초라하고 영세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일제 강점기 통영의 상점가는 일본인에 의해 신시가지가 조성된 항남동 동충과 중앙간선도로변 그리고 중앙동 일대에 형성돼 있었다.

(3) 해방이후 : 통영상권의 변동

1950년 5월 서호동에 서호공설시장(새터시장)이 태어남으로써 통영의 시장은 기존의 중앙공설시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양대 공설시장 시대를 맞게 되었다. 공설시장이란 생활필수품을 수요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서호공설시장의 출범 이후 두 시장은 자연스럽게 기능을 나눠 갖게 된다. 즉, 서호시장은 활어 등 해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아침시장으로, 중앙공설시장은 주로 잡화를 취급하는 오후시장으로 각각 기능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독특한 기능분담현상은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이 지난 1980년과 84년에 각각 기존의 공설시장 체제에서 '민영화된 상설시장'으로 허가되기 전까지 지속됐다.

3)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병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시장은 통제영시대에 5일장의 정기시장으로 출발하여 해방 후 공설시장체제를 거쳐 1980년 10월에 민영화된 상설시장으로 허가됐다. 그런데 전통 깊은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써 허가를 득하기 훨씬 전부터 고정상인들이 장옥세(점포세)를 내고 매일 영업을 하는 '상설화된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해방 직후 새터에서 천막촌으로 출발한 서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이한 것은 중앙, 서호시장이 민영화된 상설시장으로 허가된 뒤로도 5일장의 정기시장인 옛 통영장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즘도 정기시장 개장일(매월 끝자리 2,7일)이 되면 중앙시장 서호시장의 외곽도로변 또는 진입도로변에 많은 노점상들이 몰려 장터는 북

새통을 이룬다. 이들은 노상에서 농수산물가 각종 잡화를 늘어놓고 노점좌상을 벌이는데, 장꾼들 중에는 인근 면 지역에서 나온 농어민들이 많고, 장날을 따라 각지의 장으로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속칭 '장돌배이'들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4) 통영의 전통시장

중앙시장 이외의 전통시장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위판장	통영시 소재 각 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위판장에서는 통영 근해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올린 갈치, 고등어, 광어, 옥돔 등 싱싱한 수산물을 경매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바빠 움직이는 어민들의 모습과 수북이 쌓이는 수산물 및 곳곳에서 수시로 열리는 경매장면은 통영여행의 색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구경거리이다.
서호시장 (새터시장)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앞에 위치해 있으며(면적 4,512㎡),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들의 임시주거지로 삼았으며 이들이 아침시간대에 상행위를 하면서 점차 사설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 생긴 터라 하여 새터시장, 아침시장, 아적재자라고도 한다.
중앙활어시장	제일은행 옆에 위치해 있는 수산물 활어도매 전문시장으로 통영 앞바다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활어들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중앙시장	강구안 문화마당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시장으로 통영의 싱싱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거북시장 (북신시장)	시내로 진입하기 전 상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어 재래시장 품목과 공산품등을 같이 살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5) 전통시장 육성사업

통영 중앙시장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올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로 인해 중앙시장은 지역의 역사, 문화 및 특산품과 연계해 3년간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18억여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시장은 400여년의 통제영문화와 더불어 동피랑 벽화마을, 한려수도 케이블카를 엮은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문화공연을 유치해 고객의 입맛 뿐 아니라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이름 알리기 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월 초까지 신청한 전국 16개 시도의 45개 시장을 대상으로 3월 프리젠테이션 평가와 현장 실사를 병행하고 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는 시장을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들과 차별화한 문화관광을 접목한 전통 매장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시장은 벽화조성, 관광 테마길 조성, 테마 상징탑 및 조형물 설치, 어류 좌판 제작 및 바퀴달기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생대외나 시민 노래자랑, 대학동아리 공연과 공예체험교실을 운영하

고 원스톱 택배서비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중양시장의 개성을 살린 새로운 스토리를 개발해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¹⁾

- 참고자료 -

통영시지, 통영시, 1999.

신아일보, 2015.

1) 신아일보, 2015, 4, 2.

◦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정리 : 석사과정 4학기 조쌤이

- 형 식 : 자동순환 2선식 Gindola
- 선로거리 : 1975m(국내최장)
- 고 저 차 : 337m(하부역사 48m, 상부역사 385m)
- 속 도 : 최고 6m/s
- 소요시간 : 약 10분
- 수송능력 : 800명/hr
- 운반기구 : 8인승 48대(화물용 1대 포함)

1) 케이블카란?

케이블카(cable car)의 법적인 용어는 삭도(索道)로써,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삭도궤도법 제3조)을 뜻한다. 여기서 케이블카란 엄밀히 말해 등반철도를 의미하며, 알프스 등 고산지대에서 케이블을 이용해 열차를 끄는 방식을 말한다. 케이블카의 영어식 표현은 Ropeway가 일반적이며, Aerial Cableway 또는 Aerial Tramway라고도 한다.

케이블카의 종류는 용도(여객, 화물, 전용), 밧줄구조(단선식, 복선식, 다선식), 운전방식(왕복식, 순환식) 등 여러 가지로 나눈다. 현재 통영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자동 순환식 케이블카¹⁾로 서울 남산이나 설악산 등에 있는 왕복식 케이블카²⁾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 외로는 스키장의 리프트인 고정 순환식 케이블카³⁾와 화물 케이블카⁴⁾가 있다.

2) 케이블카의 이점

케이블카의 이점으로는 응용분야가 넓어 산림,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 관광, 레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타 교통수단과 비교한 케이블카의 이점으로는 건설비가 저렴하며, 계곡이나, 해상, 광야를 통과할 때 교량, 도로설비, 축대, 성토 등이 필요 없다. 또한 지세에 관계없이 최단거리 직선 주행이 가능하고, 눈, 비에 의한 재해가 적고, 제설작업이 필요 없다. 철도, 도로와 교차 할 때도 다른 교통을 차단하지 않으며 교통통제 인원도 필요 없으며, 수송량에 따른 사고피해도 현저히 적다. 마지막으로 자연훼손 면적이 도로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소음/배기 등에 의한 환경피해도 거의 없어 언제든지 원래의 자연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 1) 밧줄에 자동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 2) 밧줄에 운반 기구를 매달아 정류장을 왕복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 3) 밧줄에 고정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운반 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 4) 화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삭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환경피해가 적은 것이 큰 이점이라 생각한다.

3)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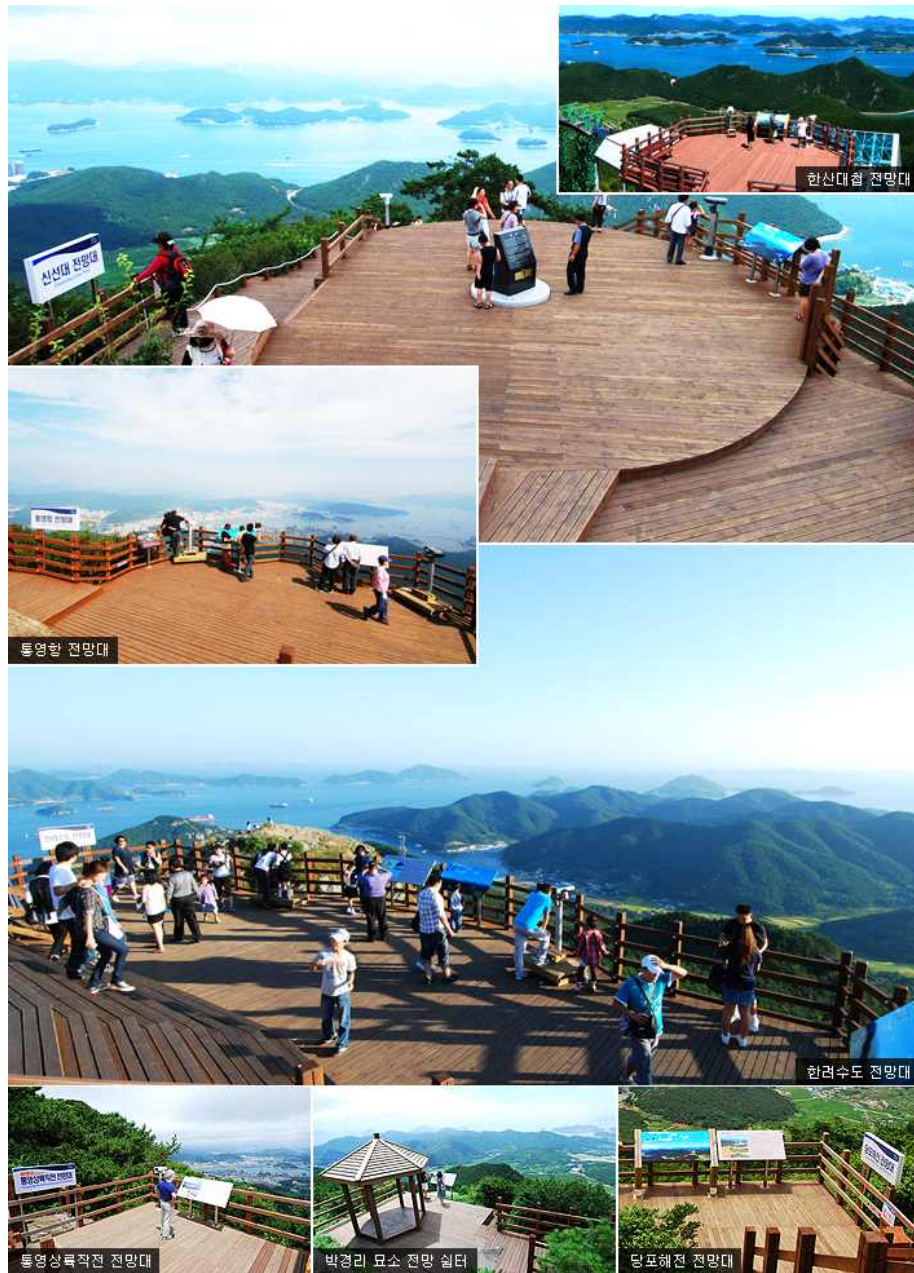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와 다른 특징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유일한 2선(bi-cable) 자동 순환식 곤돌라 방식으로 스위스의 최신기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 길이도 1975m로 국내 일반관광객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다. 특히, 그렇게 긴 길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설계에 의해 중간지주는 1개만 설치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탑승객에게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8인승 곤돌라 48대가 연속적으로 탑승객을 운송함으로써 지체 없이 탑승이 가능하며, 가까운 사람끼리 오붓하게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작년 6월쯤 통영관광을 준비하며 인터넷 검색창에 통영관광을 검색하면 빠지지 않는 곳이 미륵산 케이블카였다. 통영 케이블카 홈페이지에서 뿐만 아니라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라 일정에 넣어 케이블카를 타러 간적이 있다. 그 당시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직접 타보지는 못했지만 케이블카 건물 뒤로 펼쳐져 있는 미륵산의 경치는 케이블카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았다. 대구 앞산 안에 있는 앞산케이블카도 이용해 본적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 앞산 정상방향과 앞산 전망대로 가는 두 길이 있다. 정상방향에는 식사와 음료를 판매하는 휴게소가 있으며, 전망대 쪽으로 가는 길은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정상에 오르면 눈앞에 펼쳐지는 대구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망대는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에는 산정상과 전망대 반대편으로 연결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산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통영의 케이블카와 비교하면 운행 중 경치는 통영케이블카가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장현⁵⁾의 「케이블카 방문객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를 중심으로」(2011.8)에서 경관의 매력성이 케이블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미륵산 정상 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경관이 케이블카 방문객들에게 매력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였다. 또한 지각된 가치가 케이블카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케이블카 이용비용을 지불할 것에 비해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케이블카 이용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여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 대비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비용 지불 대비 만족도 높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인공폭포, 야생화 꽃길, 당포해전전망대, 박경리 묘소 전망쉼터, 봉수대 쉼터, 한려수도 전망대, 통영항 전망대 통영상륙작전 전망대, 신선대 전망대, 정지용 시비, 한산대첩 전망대 등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일주일 안에 받아 볼 수 있는 엽서를 쓰는 엽서 자판기, 휴게소 등 환경 친화적인 자연과 수풀 속에서 심신을 쉬어 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5)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e-mail: jhnam@kyungnam.ac.kr



케이블카를 타러 갔을 때 비가 오긴 했지만 추적추적 오는 정도라 혹시나 다시 운행되지 않을까하여 건물 안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었다. 그때 1시간 정도는 지루하지 않게 기다렸었는데, 건물 안의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어서였던 것 같다.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편의점, 광고판 등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줬고, 무엇보다도 청결해 보이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평소에는 통영 케이블카가 워낙 인기가 많아 대기 주말에는 대기 인원수가 상당하다. 그리하여 홈페이지에 대기 시간별 주변 관광코스를 알려주는데 탑승번호를 입력하면 예상대기 시간을 안내해 주며 시간별로 관광코스를 정하여 들릴 수 있도록 알려준다. 관광코스로 20분에서 최대 80분까지 소개해준다.

4) 한려수도 케이블카로 인한 지역 활성화⁶⁾

통영의 케이블카는 2008년에 건립되어 꾸준히 탑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1일 하루 평균 탑승객은 4075명으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쭉 120만 명을 유지하였고, 2010년에서 현재까지 130만 명의 탑승객이 이용하였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120만 명으로 줄었지만 현재까지 130만 명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다.

여름에 탑승객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9년 여름에는 지난해 2008년에 비해 62%가 증가하였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일 동안 모두 8만6656명(1일 평균 8665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렇듯 통영케이블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다. 2010년에는 기억경제 활성화 사례발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통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전통 재래 시장 육성 및 향토자원 개발 판매와 연계하는 것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치 3년 만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통영이라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되었고,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

남장현, 「케이블카 방문객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3권 제2호 통권 제28호, 2011.

6)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홍보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통계와 기존자료 수집

7) 통영관광 개발 홈페이지 <http://corp.ttdc.kr/>

- 발 행 :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 자료정리 : 김기현, 김민주, 이정민,
이준현, 조샘이, 조우경, 황혜진
- 편 집 : 우선정, 조수현
- 발 행 일 : 2016년 3월 9일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Aesthetics and Art History, Yeungnam University, Korea

- 주 소 : 우)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507호
 - 전 화 : 053-810-3342
 - 홈페이지 : <http://mini.yu.ac.kr/>
-